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# 글로벌 은행 규제안, 합의 진전

-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의 자본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안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은행업계 및 일부 국가와의 절충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기대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.
  - 지난주 미 재무부장관 티모시 가이스너(Timothy Geithner)는 미국과 유럽이 시장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합의했다고 밝힘.
  - 금융위기 이후 20개국 이상의 감독당국과 재무각료들은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이 문제는 G20회의의 중심의 제로 논의될 예정임.
  - 새로운 은행규제는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은행업계와 일부 국가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시행시기는 201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.
- 은행들은 새로운 은행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규모를 감소시켜 세계경제 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  - 은행들은 새로운 은행 규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, 애널리스트들은 규제의 강도가 약화되더라도 은행산업의 수익성은 두 자리수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함.
  - बैं크 오브 아메리카(Bank of America)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은행의 신용 가용성(Credit availability)을 감소시키고 대출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2년간의 준비기간은 너무 짧다고 주장함.
- 결과적으로 새로운 은행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국가들 간에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
  - 일본, 독일, 프랑스 등의 국가는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, 미국도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도울 수 있다면 이행 기간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냄.

(Wall Street Journal, 6/4)